

檀君說話의 生命意識 研究

서 경 요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교수)

심 범 섭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박사과정)

- I. 서 언
- II. 단군설화에 나타난 人極의 생명관
 - 1. 人極의 인간생명정신
 - 2. 三五構造의 인간분위 생명관
- III. 생명의 인식과 가치관
 - 1. 자연생명과 조화된 인본주의
 - 2. 생명의 永續性和 인간 존엄의 인식
- IV. 결어

<논문 요약>

한국의 생명사상은 자연생명의 모든 활동 중심은 天에 두고 있지만 그 발현은 인간이 주축이 된다는 인간중심적이면서 자연과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기적인 인간중심주의가 아닌 자연과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人間本位사상은 고대 한국의 人極중심 생명철학의 연장이다. 이러한 생명관의 기원은 단군설화이다. 三神·三才사상에 生命水의 관념이 가해져 人極중심의 생명사상으로 발전하였다. 人極은 우주 생명의 분화와 통일의 목적이며 발전과 조화의 주체이다. 이러한 사상은 생명존중사상을 확립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되어 한국 고유의 人間本位의 사상과 철학의 근본이 되었다. 이러한 사상이 결집된 정치구조가 三五構造이다.

‘三’은 三神과 三才로 상징되는 생명의 수직 구조를 의미하며, ‘五’는 수평구조로 현재의 생활공간이며 중앙과 四方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직구조는 시간적, 수평구조는 공간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수직구조와 수평구조의 교차점은 시간과 공간의 중심이며 그 위치에 人極이 존재한다. 人極은 시간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의 기준이 되고, 공간적으로 자연과 만물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우주자연의 생명은 인간을 중심으로 탄생하고 분화하며 중화를 이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유학, 특히 조선조 성리학의 특징 중 하나는 誠을 표준으로 삼은 『中庸』의 中和思想을 윤리실천의 기본으로 삼았다. 一中이란 수직적인 시간성과 수평적인 공간성이 교차함을 의미하며 時空을 분리하지 않는 시각이다. 『中庸』을 윤리실천의 기본으로 삼은 조선조의 성리학은 단군설화에 등장하는 人極중심의 생명정신과 정치적 三五構造의 時空間的 생명관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철학은 元曉의 和諍論, 退栗의 성리학, 茶山의 실학, 水雲의 동학사상으로 계승, 발전하

고 있다.

민족 전통의 생명의식이 반영된 한국 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天命의 대항자적 지위를 확보한 인간이 생명활동의 주체자로서 생명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孝를 바탕으로 실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연과 타인의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한다. 자연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여 조화를 이루고 조상을 섬기고 자손을 교육하는 실천행위가 人極의 생명철학인 것이다.

주제어: 生命, 生命意識, 生命水, 人極, 三五構造, 中庸, 人性, 天孫思想, 天人無間

I. 서 언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숨쉬는 숨결이지만, 그에 관한 정의를 하기란 쉽지가 않다. 기본적인 생명의 정의는 살아있는 생물의 활동을 의미한다. 생물학의 발달에 따른 오늘날의 생물의 특성에는 有機物質을 바탕으로 생체가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하여 성장하는 구성·조절성·자극반응성·물질대사·증식 등 여러 가지 성장 현상이 있다. 이들 중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가지고 생물의 생명을 정의해 보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생물에서도 앞의 예와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생물의 특성을 기계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엄밀히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생명은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생성·변화·소멸하는 모든 시간적 변화를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명은 우주 전체의 모든 물질에 존재하며, 우주 자체도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그 관심을 ‘생명’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의 존재는 결코 기계론적이나 환원론적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은 언제나 새롭게 존재할 뿐 동일 또는 일정, 불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계론적 사고나 이원론적 사고로부터 우주론적 사고로의 전환이 없이는 생명을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으로 생명을 문제 삼으려는 철학적 요구가 있다고 하겠다.¹⁾

생명에 대한 인식은 동양과 서양이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서양의 생명에 대한 인식은 창조와 진화론적 사유가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이해가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는 기독교적 이분법의

1) 조용개, 「새로운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생명가치관 모색-환경윤리를 중심으로-」, 『국민윤리연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02, 103쪽 참조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환원주의, 인과론, 이원론을 근간으로 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우주를 기계적인 비생명체로 파악하고 인간과 자연을 개별화시킴은 물론 자연을 생명이 없는 물질적 기계로 취급함으로써 인간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²⁾ 이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사회가 갖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멸시키고 있으며, 산업사회에서 이분법 생명관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켜 인간 스스로의 생명까지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과 이기적인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편의만을 위하여 자연을 철저히 유린시켜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생명 위기의 시점에서 우주자연은 하나의 연속체이며 전일적으로 통합된 有機體的 統一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우주 만물을 유기적·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원론적이고 자연중심적인 동양의 전통적 생명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의 생명에 대한 철학은 정신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연과 인간의 생명적 연대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철학 특히 유가철학의 대표적인 특징은 도덕성을 중요시 한다. 그리고 도덕성은 인간의 정신생명의 본질로서, 비도덕적 가능성이 있는 신체생명 혹은 자연생명을 지도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생명의 측면에서 유가철학의 특징은 생명을 중요시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³⁾ 또한 자연의 理法과 인

2) 프라쾨프 카프라, 「지구를 살리는 새로운 선택」, 『신과학 산책』, 김재희 譯, 김영사, 1995, 20~21쪽 참조

김세정, 『양명학 인간과 자연의 한몸짜기』, 문경출판사, 2001, 29~30쪽에서 재인용

3) 牟宗三, 『中國哲學的特質』, 臺灣 學生書局, 1987, 13~18쪽 참조

윤원현, 「주자철학의 생명의지」, 『철학탐구』,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2, 5쪽에서 재인용

간 존재의 이법이 근원적으로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에 의해 무조건 지배받아야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기반, 장소로서 그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다.⁴⁾ 이러한 생명관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적 사상의 바탕이 된다.

天和 人을 일체·동일로 규정하여 인성을 천리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우주론 중심의 중국유학은 인간이 우주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며 만물을 대표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속하며 자연생명에 대한 모든 작용의 주체는 天이라는 인식이 주도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생명사상은 이와는 달리 자연생명의 모든 활동 중심은 천에 두고 있지만 그 발현은 인간이 주축이 된다는 인간중심적이면서도 자연과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이기적인 인간중심주의가 아닌 자연과 조화로우며 유지하는 인간분위의 사상이 한국의 人極 중심의 생명철학이다.

한국유학이 우주론 중심의 중국유학과는 달리 인성이 중심이 되어 天이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和同적 의미가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은 생명탄생의 근원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극 중심의 생명관은 元曉의 和諍論, 退栗의 성리학, 茶山의 실학, 水雲의 동학사상으로 계승, 발전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생명적 연대성에 대한 인식과 우주생명과 조화를 이룬 인간분위사상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생명으로 하여 생태학적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檀君說話의 三五構造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민족의 고유한 생명철학의 기원을 정립하고, 그러한 사유에서 인성의 가치가 생명철학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최재목, 「동양철학에서 보는 ‘생명’의 의미-‘生命’의 개념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6, 365쪽 참조

II. 단군설화에 나타난 人極의 생명관

중국의 사상은 선진시대 天人構造로부터 출발한다. 생명의 출발점 역시 天理와 人性을 축으로 하고 있다. 천리는 우주자연의 근본 원리이다. 천리는 생명의 흐름 속에서 인간에 내재되고 이것을 곧 인성이라고 한다.

고대 유가가 말하는 우주내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의 전일적인 생명 공동체에 속하고, 각각의 부분들은 각자의 생명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 있다.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생명력은 바로 인간과 자연을 내적으로 통일하여 생명이 약동하는 존재의 연속체를 이룬다.⁵⁾ 중국 고대의 유가들이 말하는 ‘天人合一’이라는 철학적 이념은 우주관 또는 세계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윤리관으로 중국적 윤리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⁶⁾ 따라서 인간은 우주의 생명체 중의 하나이며 만물을 대표하고 있다. 인간이 천리와 합하게 되면 하늘과 일체가 된다. 중국의 天人관계에서 인간의 존재적 가치보다는 天이라는 기준에 도달하려는 의식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天人관계는 人間本位의 사상이기 때문에 ‘天人合一’과는 전혀 다른 人極을 중심으로 한 ‘天人無間’⁷⁾의 철학적 관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현재 시점에서 인간 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관점을 갖고 있다. 인간은 天과 地와 함께 人極으로서 우주를 구성하는 생명 기본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人極중심의 생명관은 민족의 시원과 함께하고 있다.

5) 鄭炳錫, 『宇宙 大家庭의 生態論的 思惟와 天人合一의 生命倫理』, 『유교사상연구』, 한국유교학회, 1998, 38쪽

6) 鄭炳錫, 앞의 논문 38쪽 참조

7) 이기동, 『한국성리학의 원천 李穡』,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79쪽

‘天人無間’이란 용어는 물론 목은이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주자도 이 말을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주자철학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天人合一’이므로 주자가 쓴 용어는 거의 ‘天人合一’이고, ‘天人無間’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목은에서는 ‘天人合一’이란 용어가 씌어지지 않는 대신 유일하게 ‘天人無間’이란 용어만 쓰이고 있다.

1. 人極의 인간생명정신

일반적으로 說話와 神話의 분별은 상징성과 실제성의 차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따라서 단군설화는 인간 실제의 생명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것이다. 우리민족 고대국가의 건국설화나 시조의 탄생설화는 고구려 망명 집단이 건국한 백제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분모가 형성되어 있다. 첫째 天孫이 하늘에서 하강하는 天孫降臨사상에 의하여 생명창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고대국가의 천손강림에 따른 매개의 역할을 나무(木)와 알(卵)이 하고 있다. 셋째 數 철학으로는 ‘三’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넷째 항상 물(水)과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들의 근원이 단군설화이다.

단군설화 속에는 하늘·땅·인간 세 개의 축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三神사상과 天地人 三才⁸⁾사상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桓因·桓雄·檀君은 전래의 삼신사상과 관련이 있다. 桓因은 천상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神으로 하늘을 상징하고, 桓雄은 하늘에서 탄생하여 지상으로 강림한 神人으로서 땅을 상징한다. 단군은 人神으로 인간세상에서 지극한 존재가 된다. 三神은 하늘과 인간과의 생명의 영속성을 부자관계를 통하여 상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닮은 자손을 무한하게 탄생시켜 나가는 프랙탈(fractal)⁹⁾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桓雄은 天이며, 熊女

8) 『周易』 說卦,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

9) B. mandelblot., The Fractal Geometry of Nature, N.Y; W.H. Freeman and Co., 1977
1쪽 프랙탈은 1975년 만델브로트가 ‘불규칙적 형상의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이다. 라틴어 ‘fractus’가 어원으로 분해, 해체의 개념이다. 부서진(broken up), 불규칙한(irregular), 분할된(fragmented) 의미를 지닌다. 유클리드 형상과는 전혀 다른 기하학적 형상으로 그 주된 특징은 첫째, 불규칙적이며, 둘째, 모든 스케일에 있어 ‘불규칙성의 같은 정도(the same degree of irregularity)’를 갖고 있다. 셋째, 프랙탈 물체는 전체와 부분에서 언제나 부분이 전체를 닮는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이 있다.

김주미, 「프랙탈 색채패턴의 미학적 의의 및 표현특성」, 『한국색채학회 논문

는 地, 檀君은 人으로 三才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天地의 결합에 의하여 인간 생명이 탄생함을 의미하고 있다. 桓因·桓雄·檀君의 三神은 분화와 발전, 桓雄·熊女·檀君의 三才는 통일과 조화의 형상을 표현하는 설화적 형태이다.

三神은 분화와 발전, 三才는 통일과 조화를 상징한다. 檀君은 땅에서 태어나 만물의 대표자로 존재하는 人極이다. 人極은 三神과 三才의 중심에 있다. 人極은 현재를 기준으로 우주자연의 분화와 통일의 목적이며 발전과 조화의 주체이다. 우리민족의 기원은 三神사상과 三才사상의 입체적 결합에 의하여 수직적으로 시간성을 지닌 생명의식과 수평적으로 공간성을 의미하는 실천의식이 妙음을 이룬 人極중심사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단군설화에서는 天地의 交易으로 탄생한 인간이 天理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질적인 요소가 혼합되지 않고 하늘로부터 순수한 天孫이 강림하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天孫의 강림을 위하여 하늘과 땅과의 연결을 담당하는 매개자의 역할은 太白山과 神檀樹가 담당하고 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오르지 못하는 높이를 갖고 있는 나무로서 喬木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중심목이며 우주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神格이 부여되어 神木이라고 말한다. 또한 나무는 끊임없이 자라는 것과 기후변화에 의지해서 생명의 재생과 주기의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서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¹⁰⁾

종교사의 맥락에서 보면 나무는 항상 성스러움을 顯現하는 聖物로 나타난다. 하늘을 향하여 높이 치솟은 형상, 무한히 반복되는 죽음과 재생의 생명력은 나무가 어떤 거룩한 실재를 표현하고 있다는 종교적 직관을 탄생시켰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널리 발견되는 나무에 대한 신앙은

집』, 한국색채학회, 2003, 2쪽에서 재인용

10) 최종현, 「고문헌에 나타난 승목사상 연구」, 『국토계획』제37권 2호, 대한국토·도시학회, 2002, 8쪽 참조

나무 자체를 신격화한 것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실재가 나무를 통하여 顯現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나무가 顯現시키는 거룩한 실재는 생명의 근원, 우주의 창조성, 우주의 중심, 지혜의 원천이 되는 신적 존재를 지칭한다. 신화상 나무는 우주목·세계수·중심축·지혜의 나무라고도 한다.¹¹⁾ 桓因·桓雄·檀君의 명칭에서도 나무(木)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토테미즘적 자연관에서 범세계적으로 ‘山’은 天界와 地上界, 神界와 人間界를 연결해주는 ‘세계의 중심, 우주산(Cosmic Mountain)’의 이미지를 나타낸다.¹²⁾ 따라서 단군설화의 太白山과 神檀樹는 天地交易 관념을 완성시키는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天孫사상의 상징이 되고 있다.

天孫사상은 우리민족 특유의 敬天사상과 조상숭배의식으로 발전하였다. 하늘은 ‘주재적’ 하늘이며,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인격적’ 하늘이다. 이 하늘이 나의 조상을 낳고, 조상이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는 나를 낳은 것이다. 나의 근원을 찾아가면 조상을 찾아 하늘에 까지 달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하늘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자 함이다. 그런 점에서 하늘을 공경한다는 것은 조상을 통해서 더 올라가 하늘에까지 달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난생설화는 씨알이 생명의 본질이므로

11) 왕희자, 「한·일 양국 천손강림(天孫降臨) 신화 비교 고찰」, 한국비교학회, 2002, 190쪽

12) 미르치아 엘리아데, 『샤머니즘-고대적 접신술』, 이윤기 譯, 까치, 1992, 164~165쪽 참조

“우리는 다른 저서에서 이미 이 ‘중심’의 상징체계가 고대문화와 동양의 위대한 문명사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제를 다룬바 있다.-중략-장차 샤먼이 될 자가 그의 巫病 중에 오르는 산, 후일 샤먼이 되어 접신 여행 중에 오르게 되는 산이 바로 우주산이다.-중략-巫儀 중에 샤먼은 외견상으로는 祭儀的인 나무에 오르는 것에 불과 하지만 그의 영혼은 우주산 꼭대기에 이른다. 그 까닭은 세계수의 상징체계는 중심적 산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왕희자 앞의 논문 190쪽에서 재인용

내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으며 영원불멸하게 자손으로 이어져 繼繼 承承하여 절단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敬天愛人 사상은 고대로부터 한민족의 특이한 신앙체계라 할 수 있다.¹³⁾ 敬天의식은 생명의 수직적 관계를 인식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고구려의 ‘東盟’, 濊의 ‘舞天’, 부여의 ‘迎鼓’ 등은 이러한 敬天사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의식들이다. 자아중심의 관점에서 부모님은 나의 생명을 생성한 하늘과 땅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부모님 생전에 孝를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 극진히 제사 드려 조상신으로 섬기는 조상숭배의식을 형성하였다. 우주의 깊은 곳에 생명의 근원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경천 관념은 수직적으로 조상과 부모에 이르러 조상숭배와 孝心으로 발현되고 있다. 효심과 조상숭배의식은 윤리적 차원이며, 조상을 낳은 上帝에 효성을 바치는 것은 종교적 차원이다.

天을 대표하는 桓因·桓雄은 ‘한’사상의 근원이 되며, 단군설화의 기본사상은 ‘한’사상이다. ‘한’은 漢字로 桓으로 표기하게 된다. 桓의 문자를 破字해보면 桓의 글자에서 木邊은 宇宙木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巨몸은 시간적·공간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짐을 뜻하기 때문에 天孫으로서 밝은 하늘과 태양을 의미하는 밝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간 생명이 하늘에서 온다는 인식은 오로지 하나의 밝음에서 우주 생명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 생명을 인간 세상에 살리는 길은 三符印, 즉 金尺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헤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상에 현실적으로 기준을 삼아야 할 모든 표준이 되는 것은 天人관계에 보여주는 父子의 親愛이다. 또한 인간 생명의 탄생을 桓因과 桓雄의 부자관계로부터 신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神人, 즉 다시 말해서 天人관계를 설명해 주는 생명사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른바 天倫으로서 생명의 탄생으로 비롯되는 孝의식은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윤리이다.¹⁴⁾

13) 柳承國, 「廣開土大王碑文을 통해서 본 韓國古代思想의 原型 探究」, 『학술원논문집』 제43집, 대한민국학술원, 2004, 29쪽

만물은 물에서 탄생하고 물에 의해서 생명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현상계에서 물질로 나타나는 水는 영원성과 통일성의 순환적 운동구조 하에서 생명태동의 상징적 물질이다. 세계의 중심이며 宇宙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태백산은 우리민족의 靈山 백두산을 말한다. 우리의 정신 속에 물(水)을 대표하는 것이 백두산의 天池¹⁵⁾이다. 天池는 陰을 대표하는 땅이 陽의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는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성스러운 연못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원초적인 물(primitive-waters)’은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힌두교, 아메리카 인디언 등의 우주기원신화에도 나타난다. 이에 따른 잠수 모티브의 분포도 중부유럽으로부터 시베리아 내륙 아시아를 경유하여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에까지 미치고 또 한편으로는 베링해협을 건너서 북미까지 나타나 있다.¹⁶⁾ 이와 같은 원초적인 물의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물이 생명의 원천, 창조의 모태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¹⁷⁾

‘三’은 생명체의 기본구조가 된다.¹⁸⁾ ‘三’의 語源은 ‘셋·세·삼·셋’ 등으로,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¹⁹⁾ 天池는

14) 서경요, 『한국유교지성론』, 儒敎文化研究所, 2003, 156쪽 참조

15) 白頭山 頂上에 있는 큰 못. 제3기말의 火山活動으로 이루어진 칼데라(caldera)호로, 제3기는 지질시대에서 신생대를 2분한 것 중 전기로 중생대 백악기의 뒤이며, 신생대 제4기의 앞이다. 약 6500만 년 전부터 200만 년 전까지의 약 6300만 년 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천지의 생성은 약100~200만년 전이다.

16) 이필영, 「단군신화의 기본구조」, 『白山學報』26, 1981, 12~13쪽
尹明喆, 「檀君神話에 對한 構造的 分析-神話素 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사상학회, 1988, 155쪽에서 재인용

17) 王彬, 『神話學入門』, 81~82쪽
張秉吉, 「韓國原始信仰에 관한 小考」, 39~40쪽 참조
尹明喆 앞의 논문 155쪽에서 재인용

18) 朴容淑, 『韓國古代美術文化史論』, 53쪽
尹明喆 앞의 논문 154쪽에서 재인용

19) 尹明喆 앞의 논문 154쪽 참조

우리 민족의 원초적인 물이며 生命水를 상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단군 설화에서는 三神사상과 三才사상의 입체적 결합과 물이라는 상징적 물질이 가해져 생명의 창조와 발전 그리고 조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민족 고유의 人極의 생명관을 완성시켰다.

三神사상과 三才사상의 결합으로 형성된 人極중심사상과 天池로 상징되는 생명관은 한국 고유의 사상과 철학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명관은 인간본위의 사상을 형성시켰으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弘益人間’ 정신은 고조선의 건국이념으로 대한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계승되고 있다.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을 위한 정치를 베푼다는 측면에서 인간본위의 사상이 발현된 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은 고조선의 정치구조에 구현되고 있다.

2. 三五構造의 인간본위 생명관

생명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다. 또한 생명은 주기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아 성쇠하게 된다. 우주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보면 만물은 변화의 주기에 따라 생성·소멸되는데, ‘三’과 ‘五’의 數 결합은 우주와 만물의 기본을 상징하게 된다. 이것은 陰陽과 四象과 八卦로 분화되어가는 우주론 중심의 구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三神과 三才에 나타나 있듯이 ‘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수리적 개념도 다양하다. ‘三’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통일·조화·생·동쪽·봄 등을 뜻한다. 우주의 기본 구조로 ‘三’의 개념은 天地人 三才를 나타낸다.

‘三’은 神聖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三’의 신성성은 샤머니즘에서 나타난다. 샤머니즘적 ‘三’의 논리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수 중에서는 홀수의 숫자가 신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 숫자를 영혼이나 내세의 세계, 혹은 무당의 기구나 일반 생활의 많은 범위에 적용하고 있고, 숫자 중에서도 3이란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²⁰⁾ 예를 들면 ‘미누신스크’의 일부 탈탄인들은 황천을 3으로 나누고 영혼은 3년을 배회한다고 여기며 이것은 에스키모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이다. 샤먼계급도 3분화 되었으며, 샤먼이 사용하는 것은 칼·방울·거울 등의 세 가지 神器이다. 우주를 상징한다는 그들의 삼지창이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시베리아 샤먼들 등의 巫具 등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²¹⁾

조화와 안정의 원리로서 ‘三’의 의미가 있다. 조화와 안정의 구조적 특징은 완전함과 완성의 의미로 전개된다. ‘三’의 완성의 의미는 고착된 완성이 아니라 변화와 발전을 내포한 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三’의 의미는 많음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한다.

三神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공간적 구조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생성된 天地人 三才의 위치가 天과 地 사이에 인간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수직적인 공간을 위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평적 공간의 완벽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방과 중앙으로 구성되는 五方이 표현되어야만 한다.

단군설화의 三危太白, 天符印 세 개 등에서 표현되고 있는 ‘三’이란 수는 고대인의 수리관념으로 말하면 數의 完成을 말한다. 한편 五方으로 표현된 ‘五’란 수는 변화의 수를 의미한다. ‘三’과 ‘五’의 數 결합을 통한 정치적 三五의 構造²²⁾는 風伯·雨師·雲師로 이루어진 三公과 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으로 구성된 五臣²³⁾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세 개의 단계를 양단으로 나누는 조직은 전체와 부분, 완성과 변화를 모

20) 尹明喆 앞의 논문 153쪽

21) Nioradze, 『시베리아 諸民族의 原始宗教(Der schamanismus beiden siberischen)』, 李弘植 譯, 新丘文化社, 1976, 107쪽

尹明喆, 앞의 논문 154쪽에서 재인용

22) 신채호,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 1993중판, 54~57쪽 참조

23) 一然, 『紀異』, 『三國遺事』, 古朝鮮條;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두 망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양의 고대사상 가운데 하나인 천문과 지리와 인물을 망라하는 三才사상과 그 구조를 같이 하며, 인간사의 모든 변화양상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三五構造란 입체적 구조이다. 입체란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진다. ‘三’이란 숫자의 의미는 우주의 기본구조로 시작하여 풍요에 이르는 생명의 창조를 의미하게 된다. 이에 따라 ‘三’은 三神과 三才로 상징되는 생명의 수직 구조를 의미하게 된다. ‘五’는 수평구조로 현재의 생활공간이며 중앙과 四方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체에서 가장 완성된 모습은 球體가 三百六十餘事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편 수직구조는 시간적, 수평구조는 공간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수직구조와 수평구조의 교차점은 시간과 공간의 중심이며 그 위치에 人極이 존재한다. 人極은 시간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의 기준이 되고, 공간적으로는 자연과 만물의 중심이 된다. 우주자연의 생명은 인간을 중심으로 탄생하고 분화하며 中和를 이루게 된다. 이질적인 양극화 현상을 중화하여 원만한 사회를 이루려는 인간의 노력을 창조적 知性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조화의 형태는 한국 고대사상과 사고방식의 특성이었다.

정치적 三五構造는 수평과 수직의 입체적 구조로서 시간과 공간적 상황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三神·三才사상의 시간성과 공간성이 人極을 중심으로 妙合된 모습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天地自然이 인간을 탄생시켰지만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보면 천지와 자연은 인간의 환경이다. 한편 天地自然은 인간과 일원적 근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상대적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상호 관계를 자각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천지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든 작용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人極중심의 생명정신이다. 단군설화에 나타난 생명의식은 人性論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조 유학에서 中庸精神으로 貫通되고 있는 것이다.

Ⅲ. 생명의 인식과 가치관

儒家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대우주와 소우주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대우주의 주재자인 천은 理를, 인간은 性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우주론과 인성론이 학파간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人性은 인간을 규정함에 따라 敎學의 근원적 배경이 되고, 도덕규범을 마련하는 기준이 된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는 것 역시 人性에 의한 것이다.

人性이 天命을 실현하는 주체라는 의식은 人極의 생명정신이 ‘天人無間’의 철학적 관념을 통하여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중심이 되어 생명정신을 의미하는 시간과 육체활동을 뜻하는 공간을 입체적 구조로 보는 시각 역시 고대의 생명의식이 단군설화에서 나타난 人極중심의 생명사상으로 이러한 시각은 후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1. 자연생명과 조화된 인본주의

중국의 유학은 합리적·윤리적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한국의 유학사상은 한민족의 전통적 기질인 古神道적인 신비성이 체질적으로 가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논리적 합리성으로서 法(理)을 넘어서 영감적 妙(神)의 경지에 味到하려 한다.

崔致遠(857~?)의 ‘玄妙之道’나 元曉(617~686)의 『十門和諍論』에 보이는 ‘空’과 ‘有’의 모순을 圓融하는 철학이라든지, 李滉(1501~1570)의 ‘理之妙’나 李珥(1536~1584)의 ‘理氣之妙’, 徐敬德(1489~1546)의 ‘外化而語妙 非知易者也’라 한 語妙나, ‘훈민정음’의 원리가 ‘非智營而力索’이라 하여 인간의 합리적 지성으로만 조직된 것이 아니고, 자연의 妙理를 이룬 것이라 한 말이라든지, 李舜臣(1545~1598)의 『난중일기』에 보이는 적정을 살피는 예감의 신비성 등은 한국인의 기질과 한국사상의 특성을

알게 한다.²⁴⁾ 이러한 기질적 특성은 天理를 그대로 지니고 탄생한 天孫 민족으로서의 특이한 사유체계라고 할 수 있다. 人極은 天理가 지닌 신비성을 현재의 시점에 구현할 수 있는 중심의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자연의 생명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퇴계의 자연관에서는 天과 人이 조화를 이루고, 동시에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을 사랑함(愛物)으로써 人과 物이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 일체의 세계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퇴계에 따르면 바로 ‘敬’의 인격적 수양을 통해 인간(人)과 자연(物)은 가장 깊은 생명의 일치를 이룰 수 있으며, 仁愛라는 덕성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세계에서 깊이 도덕적 가치로 결합된 조화의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이러한 조화의 기반 위에서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으며 또 서로의 생명을 가장 잘 보호해 주는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²⁵⁾

한국의 人本主義는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자연과 妙理의 조화를 이루는 인본주의이다. 인간본위의 사상으로 인하여, 우주론적 방면으로 발전한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인성론적 관점에서 천인심성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성리학의 이론체계가 周濂溪(1017~1073)의 『太極圖說』과 鄭之雲(1509~1561)의 『天命圖說』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천인관계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한국에서는 인간의 내면적인 人心道心の 관계나 四端七情에 관한 논변 등이 깊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점은 후기 성리학 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人物性 同異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도 유별나게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²⁶⁾ 한편 權近(1352~1409)의 『入學圖說』의 경우 天과 誠命과 性을 수직으로, 意心情을 수평으로 구성한 시도는 天의 무한영원성과 人

24) 柳承國 앞의 책 207쪽 참조

25) 琴章泰, 「退溪의 物我觀과 生命의 世界」, 『퇴계학보』, 퇴계학연구원, 1997, 51쪽 참조

26) 徐垞遙, 「韓國經學의 圖說的 辨說」, 『東洋學 國際學術會議 論文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5, 67쪽 참조

의 유한성을 서로 연계시켜 보려는 발상과 의도가 周子圖와는 구별된다. 또한 无極을 표기하지 않고 음양오행의 위치가 내 자신이 남쪽에서 圖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데, 이것은 圖를 위주로 하여 내가 그것을 보는 것으로 賓主가 待對하는 차이일 뿐이라고 하여 人에서 天을 올려다보는 입체도로 구성한 것이 나를 위주로 하여 圖를 對하고 있는 태극도와 다르다고 하겠다.²⁷⁾ 이 圖說에서 논의되는 핵심은 『中庸』의 首章을 기본으로 한 인성의 문제이다.

인간은 비록 우주생명의 발동하는 감각기관 중에 제일 정묘한 마음의 영명함을 통해 우주의 모든 존재물과 자신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형체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자신과 우주의 존재물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총체적 유기체인 우주생명의 한 부분으로서 우주의 여타 존재물들과 분리된 채 단독적으로 자신의 생명은 물론 우주의 생명을 온전하게 존재시킬 수 없다.²⁸⁾ 인성론적 관점은 인간이 하늘의 천리를 현세에 펼칠 수 있는 주체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여 우주의 생명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러한 생명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양에 힘쓸 근거가 되며, 또한 인간의 내면적인 심성에 있는 天地自然과의 공통점을 찾고 자연과 감응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된다.

金麟厚(1510~1560)의 『中庸』에 대한 이해를 보면 天命은 人性의 의미를 지닌다. 더 나아가 중용의 핵심 개념으로 人性을 中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인성의 실리관념을 효리에 두고 그 중용적 실천으로서 중정 의식을 내세우기 위한 이론의 간이표가 그의 「天命圖」로 나타난다. 만유가 모두 태극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그 원리는 인간주체로부터 인식되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인도의 극치가 곧 태극이요, 태극이 다름이 아닌 인극이다. 주렴계는 『太極圖說』에서 무극과 태극을 진

27) 徐桐遙 앞의 논문 80쪽

28) 김세정 앞의 책 62쪽 참조

리의 근원으로 논술하였지만, 태극의 이치는 오직 성인이 中·正·仁·義로서 人極을 확립하는 것이라 하였다.²⁹⁾

일반적으로 한국유학, 특히 조선조 성리학의 특징 중 하나는 誠을 표준으로 삼은 『中庸』의 中和思想을 윤리실천의 기본으로 삼았다.³⁰⁾ 『中庸』에서는 우주를 기계적인 비생명체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창생하고 양육해 나가는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 우주의 생명 창생·양육의 동인으로서의 역동적 생명력은 초월적인 주재자나 초월적인 본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그것을 구성하는 존재들의 본원적인 성질로 규정된다. 우주자연은 하나의 연속체이며 전일적으로 통합된 유기체적 통일체로서 자발적 자기 생성의 전개과정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자연의 역동적이고 상보적인 자기 조직성을 자신의 생명 본질로 하여 우주자연의 자기 조직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생명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된다.³¹⁾ 우주자연의 造化가 저절로 되고, 인간 사회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을 때 天人이 無間하다는 ‘人乃天’사상으로 귀결하는 것이다.

한편 유학의 사유방법인 ‘孔門心法’을 계승하는 연구방법은 『中庸』의 誠개념 해석에 치중하여, 유학의 중심 범주가 인성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聖인의 道로서의 『中庸』은 精一하게 中을 잡는 실천 공행의 지침이다. 中이란 破字해 보면 規矩를 나타내는 乚·凵 과 準繩을 나타내는 十의 합체자로서 心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一心은 태극을 상징하며 規矩準繩이 갖추어져 있다. 그 때문에 그것을 헤아려 不偏不倚하는 것을 中이라 하고, 中이라는 것은 하나를 規矩에 관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堯舜의 執中도 그 하나를 써서 다스리는 것이고, 舜虞도 精一執中해서 規矩準繩의 德을 이룩한 것이다.³²⁾ 『說文解字』에

29) 柳承國, 『韓國思想과 現代』, 東方學術研究院, 1988, 20쪽 참조

30) 李丙燾, 『韓國儒學史』, 民族文化推進會, 1986, 서설 참조

31) 김세정 앞의 책 139~140쪽 참조

32) 『休庵先生實記』卷4 白東奎 跋文

서도 中은 속안을 표시한다. 바깥은 ‘口’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入口字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를 표시하며, 중간의 ‘丨’는 그 속에서 前後左右가 모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³³⁾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시간적인 생명이 공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精은 시간적이며 一은 공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一中이란 수직적인 시간성과 수평적인 공간성이 교차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공을 분리하지 않는 시각이다. 이와 같이 『中庸』의 본래적 의미인 一中과 단군설화의 생명의식인 三五構造를 대비해 보면 시간과 공간이 錯綜되어 相應하는 구조이며, 인간을 입체적 구조로 보는 시각이다. 그 입체적 구조란 바로 생명존재의 時空關係를 분리시키지 않고 合一하는 것이다. 『中庸』을 윤리실천의 기본으로 삼은 조선조의 성리학 연구에 있어서도 단군설화에 등장하는 人極중심의 생명정신과 정치적 三五構造의 時空間的 생명관이 유독 心性論 위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생명의 永續性和 인간 존엄의 인식

생명활동의 주체로서 인간은 수직적으로 자신을 창조한 자연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연으로부터 시작한 생명의 영속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수평적으로는 상대적 객체를 인정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인식한다.

儒家에서 지내는 제사의식도 크게 분별해 보면, 자연생명, 인간생명, 문화생명에 관한 것이다. 자연을 경외하고 천지자연에 제사를 지내며, 성현을 받들어 모심으로써 문화생명을 경배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란 인간화를 의미하고, 금수와 달리 인간답게 생활을 꾸려 가는 것이다. 인생이란 다름이 아니라 인정을 나누며 생명을 아끼는 마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서로가 단짝을 이루어 어울리며 사는 것에 불과하다. 이

33) 『說文解字』 “中 內也 從口 丨 上下通”

러한 환경 속에서 생명사랑은 생기를 불어주고, 즐겁게 활기를 찾아 생활하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과 문화의 중심은 현재 생명을 지닌 인간이다.

현재의 인간은 과거의 인간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 태어났다. 유교적 이해로서는 인간 세상을 이어가는 繼世사상으로 인간 생명을 목숨으로 계승해가는 현실 그 자체를 중시한다. 따라서 현세를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문제점이 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에 불과하지만 부자관계에서 비롯하는 인간 환경이 시간적인 연속성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역사를 만드는 것은 생명의식에 의한 것이다. 생명을 아끼고, 자연을 아끼고, 문화를 아끼는 것이 ‘父慈子孝’라는 쌍방의 원리이다. 이것은 단지 목숨만의 연속이 아니다. 인간생명은 생명의 뿌리인 조상에 대한 숭배로 나타나고, 문화생명은 인간화에 공헌한 성현에 대한 숭배로 나타나고, 자연생명은 산천인 자연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생명적인 효의식은 시간적인 상황을 중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효의식은 부자간에 생명의식을 갖고 相應하는 것이다.

효의 본래적 의미는 인간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식의 사랑은 상대에 대한 생각이요,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상대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한 생명의식을 본질로 삼고 생명의 건전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효행인 것이다. 따라서 효는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윤리의 근본이며 실천철학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단군설화에서는 부자간에는 父慈子孝의 쌍방윤리가 제시되어 있고, 군신간에는 홍익인간을 위하여 君義臣忠의 공동윤리를 찾을 수 있으며, 부부간에는 夫婦相敬의 공생윤리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³⁴⁾ 이러한 구조의 특징은 家와 國이 일체라는 가족분위이다. 나라는 집안의 확대이며 연장이므로 국가원리를 축소해 보면 가정의 원리에 포섭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본체요 본위인 것이다. 이른바 천하일가는 문화적 의의에 있어서 사회에 편중되어 말하는 것으로 한

34) 이을호, 「윤리적 측면에서 본 단군신화」, 『현담 유정동화잡논총』, 1981 참조

문화 사회이므로 일개 국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조직에서도 그 한계가 없다. 문화지상주의로서 정치의식보다는 도덕의식으로서의 인격적 평등이 주된 목표가 된다. 따라서 윤리정치는 정치형태와 사회관계의 조직구성방식에서 인간과 금수를 구별하는 예약관념을 중심으로 야만에서 문명으로 발전하는 사회현상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야만과 문명의 경계에서 인간은 가치를 추구한다.

‘가치’는 흔히 ‘사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주로 윤리와 예술과 종교의 문제를 다룰 때 쓰인다. 그러나 이 구분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철학은 윤리적 가치인 善惡, 예술적 가치인 美醜, 종교적 가치인 聖俗뿐만 아니라 眞과 僞도 논리적 혹은 인식론적 가치로 간주하여 함께 다루어 왔다.³⁵⁾ 윤리적으로 인간이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고 생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보편적 가치임은 물론 우리 사회 민주화의 규범적 기준이 되기도 한다.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을 확대해 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인간의 자격을 다시금 획득해 온 복권의 과정³⁶⁾이다.

한편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인간을 지성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으로 행위하며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며,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간을 이성으로서의 인간 또는 인격체라고 한다. 이성은 선형적 통각을 통해 자기 동일성을 의식하며, 의지의 자유를 통해 자신을 도덕적 주체로서 형성해 나가는 실천적인 능력을 가진다. 칸트는 특히 도덕적 능력을 인격체의 핵심적인 능력으로 보며, 인격체로서 인간을 존엄하다고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칸트의 생각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 인격체적 관점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⁷⁾ 한국 유학도 도덕적

35) 엄정식, 비트겐슈타인의 가치론, 『신학과 철학』,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1999, 327쪽 참조

36) 백운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실천」,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4, 205~206쪽 참조

능력을 지닌 인격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다. 그러나 천명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연과 함께 생명적 동질감을 지닌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 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실제로 인륜의 실천에 있다. 윤리란 덕목보다는 정리가 행위로 나타나는 덕행이 주제로서 동양 윤리에서는 특히 인간관계의 정리를 따지는 인륜의 문제가 주제가 된다.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철학적 인간학에서의 명제이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적인 관념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론적 규명보다는 인간은 창조물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생명론적 인간학을 중시한다. 인간은 자연의 창조물이면서 우주의 근원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金長生(1548~1631)은 만물의 태극보다 인심 중의 태극, 즉 진리의 주체성인 人極을 강조하였다. “사람이 天地의 중심이다.”라 하는 것은 바로 이 人極을 말한 것이다. 人極으로서의 주체는 남을 해하지 않고 자기완성과 他人의 완성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공동주체이다. 여기에 각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의 도리가 성립되며,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된다.³⁷⁾ 천지자연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인간을 탄생시킨 것이 인극중심의 시간적 구조라면, 천지자연이 인간의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인극중심의 공간적 구조이다. 이러한 관념에서 시공간의 중심이며 생명활동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인간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민족 전통의 생명의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한국 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천명의 대행자적 지위를 확보한 인간이 생명활동의 주체자로서 생명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孝를 바탕으로 실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연과 타인의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한다. 자연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여 조화를 이루고 조상을 섬기고 자손을 교육하는 실천행위가 人極의 생명철학인 것이다.

37) 김국태, 「칸트의 존엄성 개념에서 본 인간 복제의 윤리성 문제」, 『시대와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1, 259쪽 참조

38) 柳承國 앞의 책 20쪽 참조

IV. 결 어

동양의 생명에 대한 철학은 정신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연과 인간의 생명적 연대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단군설화에서 생명 의식은 그러한 생명적 연대성을 우주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현재를 기준으로 사유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기원과 함께한 고대 민족 사상에 의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단군설화를 보면, 天孫사상이 사머니즘 형태의 ‘三’의 논리와 결합하여 인극의 바탕이 된 三神·三才사상이 표현되고 있다. 人極이라는 관념에 生命水의 관념이 가해져 人極中心의 生命觀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생명관은 생명존중사상을 확립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되어 인간본위의 사상과 철학의 근본이 되었다. 단군설화의 ‘弘益人間’은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을 위한 정치를 베푼다는 측면에서 人本主義가 발현된 정치이념이다. 이러한 사상이 결집된 정치구조가 단군설화의 三五構造이다.

단군설화에서 보이는 정치적 三五構造에는 철학적 생명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다. 또한 생명은 주기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아 성쇠하게 된다. 우주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보면 만물은 변화의 주기에 따라 생성·소멸되는데, 단군설화에서 강조되는 ‘三’과 ‘五’의 수 결합은 우주와 만물의 기본을 상징하게 된다. 이것은 음양과 사상과 팔괘로 분화되어가는 우주론 중심의 구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三’이란 숫자의 의미는 우주의 기본구조로 시작하여 풍요에 이르는 생명의 창조를 의미하게 된다. 이에 따라 ‘三’은 三神과 三才로 구체화되는 수직 구조를 의미하며, ‘五’는 수평구조로서 중앙과 사방을 의미한다. 수직구조는 시간적, 수평구조는 공간적 의미가 된다. 수직구조와 수평구조의 교차점은 시간과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한 입체적 구

조의 핵심적 존재가 인간이다. 이러한 구조는 시간적으로 현재가 과거와 미래의 기준이며, 우주의 생명은 인간을 중심으로 탄생되고 분화하며 중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단군설화의 三五構造에 표현된 이러한 사상이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탄생한 인간본위사상이다. 특히 인성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의 유학은 人極중심의 생명관이 일관되는 특징이 있다.

인성은 인간을 규정함에 따라 敎學의 근원적 배경이 되고, 도덕규범을 마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실천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다. 조선조에 인성론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한국 유학은 誠을 표준으로 삼은 『中庸』의 中和思想을 윤리실천의 기본으로 삼았다. 인간은 자연의 창조물이면서 우주의 근원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中庸』에서는 우주를 기계적인 비생명체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有機的 생명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 또한 인간은 우주자연의 역동적이고 상보적인 자기 조직성을 자신의 생명 본질로 하여 우주자연의 자기 조직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생명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된다. 一中이란 수직적인 시간성과 수평적인 공간성이 교차함을 의미하며, 時空을 분리하지 않는 시각이다. 따라서 『中庸』을 윤리실천의 기본으로 삼은 조선조의 성리학은 단군설화에 등장하는 人極중심의 생명정신과 정치적 三五構造의 時空間的 생명관과 有關함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天地自然에 의해서 탄생되었고, 천지자연은 인간을 중심으로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人極의 생명정신의 기본적 구조이다. 이러한 관념에서 인간은 時空間의 중심이며 생명활동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을 부모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과 대립된 인간중심사상이 아니라 자연 생명에 대한 경외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人間本位의 사상이다. 우주 자연의 流行이 五行이라고 한다면 인간사회의 活性은 五倫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 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天命의 대행자적 지위를 확보한 인간이 생명활동의 주체자로서 생명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天命의 기준으로 하는 孝理를 바탕으로 德性 실천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天地에 제사드림으로써 자연생명에 대한 고마움을 기리고, 조상에 獻爵함으로써 인간생명에 대한 그리움을 기리고, 聖賢에 再拜함으로써 문화생명을 계승 발전시키는 실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단군설화의 생명의식이요, 한국의 유가적 생명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식은 한국 유학을 거쳐 동학사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은 우주생명이다. 모든 물질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물질은 생성, 변화,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인간이나 유기물 뿐만 아니라 무기물, 우주에까지 생명이 존재함을 분명히 밝히고 생명존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동학의 생명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생명활동의 주체로서 인간은 수직적으로 자신을 창조한 자연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연으로부터 시작한 생명의 영속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수평적으로는 상대적 객체를 인정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생명의식은 시간과 공간에서 현재의 내(인간)가 중심이 되어 대자연의 모든 생명들과 연계성을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대적 객체를 인정하여 상호 존엄성을 갖고 배려함을 실천하는 것이 인륜적 존엄성이다. 이것은 時空間을 분리하지 않는 생명의식이며 이러한 생명활동에 대한 의식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다.

접수일 : 2007. 04. 26 / 심사개시일 : 2007. 05. 01 / 심사완료일 : 2007. 05. 08

<참고 문헌>

- 『三國遺事』, 김원증譯, 을유문화사, 2002
- 柳承國, 『東洋哲學研究』, 槿域書齋, 1983
- 李丙燾, 『韓國儒學史』, 民族文化推進黨, 1986
- 柳承國, 『韓國思想과 現代』, 東方學術研究院, 1988
- 신채호,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 1993중판
- 金碩鎭, 『대산주역강의3』, 한길사, 1997
- 김세정, 『양명학 인간과 자연의 한몸짜기』, 문경출판사, 2001
- 이성환, 김기현, 『주역의 과학과 道』, 정신세계사, 2002
- 서경요, 『한국유교지성론』, 儒敎文化研究所, 2003
- 이기동, 『한국성리학의 원천 李穡』,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 이을호, 「윤리적 측면에서 본 단군신화」, 『현담 유정동화갑논총』, 1981
- 이필영, 「단군신화의 기본구조」, 『白山學報』26, 1981
- 尹明喆, 「檀君神話에 對한 構造的 分析- 神話素 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사상사학회, 1988
- 백운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실천」,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4
- 徐炯遙, 「韓國經學의 圖說的 辨說」, 『東洋學 國際學術會議 論文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5
- 琴章泰, 「退溪의 物我觀과 生命의 世界」, 『퇴계학보』, 퇴계학연구원, 1997
- 鄭炳錫, 「宇宙 大家庭의 生態論的 思惟와 天人合一의 生命倫理」, 『유교사상연구』, 한국유교학회, 1998
- 엄정식, 「비트겐슈타인의 가치론」, 『신학과 철학』,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1999
- 김국태, 「칸트의 존엄성 개념에서 본 인간 복제의 윤리성 문제」, 『시대와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1

- 왕희자, 「한·일 양국 천손강림(天孫降臨) 신화 비교 고찰」, 한국비교학회, 2002
- 윤원현, 「주자철학의 생명의지」, 『철학탐구』,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2
- 조용개, 「새로운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생명가치관 모색－환경윤리를 중심으로－」, 『국민윤리연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02
- 최종현, 「고문헌에 나타난 승목사상 연구」, 『국토계획』제37권 2호, 대한국토·도시학회, 2002
- 김주미, 「프랙탈 색채패턴의 미학적 의의 및 표현특성」,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한국색채학회, 2003
- 柳承國, 「廣開土大王碑文을 통해서 본 韓國古代思想의 原型 探究」, 『학술원논문집』 제43집, 대한민국학술원, 2004
- 최재목, 「동양철학에서 보는 ‘생명’의 의미－‘生命’의 개념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6

<中文 抄錄>

檀君說話의 生命意識 研究 / 徐炯遙·沈汎燮

韓國的生命思想，其自然生命的所有活動中心在於天，但其表現却具有以‘人’為主軸的人類中心的、與自然親和的特徵。不是利己的人類中心主義，而是維持與自然協調的‘人間本位思想’，是古代韓國的‘人極中心生命哲學’的延長。這樣的生命觀起源於檀君說話。三神、三才思想里，融入生命水的觀念而發展為人極中心的生命思想。人極是宇宙生命分化、統一的目標，是發展和協調的主體。這樣的思想確立了生命尊重思想，認識了人類的尊嚴性，從而成為韓國固有的人間本位思想和哲學的根本。這樣的思想集結而成的政治構造就是‘三五構造’。

‘三’意味着象徵為三神和三才的生命垂直構造，‘五’作為水平構造，是現在的生活空間，意味着中央和四方。因此，垂直構造內含着時間的含意，水平構造則內含着空間的含意。垂直構造和水平構造的交叉點是時間和空間的中心，人極存在於這個位置里。人極在時間上，在現在這個時刻是過去和未來的基準；在空間上，又是自然和萬物的中心。所以，宇宙自然的生命以人為中心而誕生、分化并達到中和。

通常，韓國儒學特別是朝鮮祖的性理學，其特徵之一就是將以誠為標準的『中庸』的中和思想作為倫理實踐的根本。所謂‘一中’，意味着垂直時間性與水平空間性的交叉，是時空不分離的時刻。以『中庸』的倫理實踐為本的朝鮮祖性理學，一貫地維持着檀君說話里出現的人極中心的生命精神和政治三五構造的時空間的生命觀。這樣的生命哲學繼承并發展着元曉的和諍論，退栗的性理學，茶山的實學，以及水雲的東學思想。

反映了民族傳統生命意識的韓國儒學中，人類的尊嚴性和生命的價值在於，確保了天命代行者地位的人類作為生命活動的主體者，其目的是為了維持生命的永續性。因此，具備以孝為本的實踐基準并認定自然與他人的生命尊嚴性。熱愛自然，關懷他人達到和協，侍奉祖先并教育子孫的實踐

行爲就是人極的生命哲學。

關鍵詞: 生命, 生命意識, 生命水, 人極, 三五構造, 中庸, 人性,
天孫思想, 天人無間。